

병적인 심장

• 콜레스테롤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있으며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이것을 만들고 있다.

• 어떤 음식이 혈액내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가?
동물성 음식물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방을 가진 고기류가 흔히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버터, 치즈, 크림, 달걀 노른자등에도 많다.

• 혈액내 콜레스테롤은 조절할 수 있는가?
조절할 수 있다. 어떤 음식물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액체로 된 야채기름, 액체 야채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이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의 식사에 이러한 기름을 2-4차순까지 정도 넣어 먹는것이 좋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사가 죽상동맥경화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생선과 가공유로 된 식사를 권장한다. 지방이 적은 밀크 또한 좋다.

• 우리들 신체가 죽상동맥경화증에 순응할 수 있는가?
가끔된다. 어떤 환자에서는 부차 순환로가 생긴다.

• 그러면 부차 순환로란 무엇인가?
더 큰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혈액운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더 작은 동맥이 열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더 작은 동맥은 더 커져서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이 부위에 보낸다. 이들 순환의 새로운 계통을 부차로, 또는 부차순환로라고 한다.

2. 관상동맥질환
• 관상동맥이란 무엇인가?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고 있으며, 심장을 통해 흐르는 혈액은 심장에 영양을 직접 공급해 주지 않는다.

대동맥에서 분지하는, 다른 동맥들이 심장에 영양을 공급한다. 이들 동맥들을 관상동맥이라 부른다. 관상동맥은 심근의 여러 곳 깊숙이까지 혈액을 공급한다.

• 관상동맥 질환이란 무엇인가?
관상동맥내에 콜레스테롤이나 기타물질의 덩어리가 생긴 죽상경화증이다. 이들 덩그러튼 작은 지방덩어리는 관상동맥을 좁게 만들며, 심근에 혈류를

보내는데 지장을 준다.

• 관상동맥 질환은 중증인가?
그렇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만일 심근세포가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심근의 일부가 손상을 받는다. 죽상동맥경화증은 다음 3가지 방법의 어느 하나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1. 지방질의 덩그러튼 작은 덩어리는,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2. 죽상경화증을 일으킨 혈관의 내면 중 거친 표면은 혈액이 응고(혈전증)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만일 혈전을 만들어 그것이 충분히 커지면 동맥을 막는다. 이같은 종류의 심장마비가 관상동맥 혈전증이다.

3.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해 좁아진 관상동맥은 그 자체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어도 심근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다. 산소가 충분치 못한 혈액이 공급된다면 심장은 규칙적이고 율동있는 박동을 하지 못한다.

• 심장마비를 경고해줄 수 있는 전구증세가 있는가?
있다. 이들 증후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그러나 위험신호로서,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해야 한다. 재빠른 대처만이 생명을 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해야한다.

• 심장이 멎는 환자를 구할 방법이 있는가?
있다.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에는 구강대 구강 호흡법과 흉부를 규칙적으로 압박하는 것 등 두가지 있다. 구강대 구강 호흡법은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흉부압박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해야 한다.

• 심장마비로부터 소생할 수 있는가?
그렇다. 소생기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다. 좋은 병원의 관상동맥 집중치료실 또는 중환자실에서는 언제나 환자를 감시, 치료할 수 있다.

이같은 회복시기에 어떤 환자에게는 손상을 받은 심근부위에 부차로가 생긴다. 손상을 받은 혈관이 더 커지면, 손상을 받은 심근의 대부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흔조직이 점차 생기게 된다.

이때 환자는 침상에서 쉬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 중국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일터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다.

• 협심증이란 무엇인가?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

1. 흉부의 한복판에 무겁고 쥐어짜는듯한 동통을 느낀다.

2. 동통은 어깨, 팔, 목 또는 턱 쪽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다.

3. 심히 많이 흐른다.

4. 오심, 구토 및 호흡곤란을 느낀다.

흔히 이들 증세는 없어졌다가 후에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증후 중 한가지라도 나타나면 주치의에게 달려가거나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런 위험신호를 등한시 하는일도 있을 수 있는데 흔히 자신은 심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위험신호를 일으킨 당신 주위에 누구든지 접근하면 지체하지 말고 구조를 청하여야 한다. 소화장애 같은 증상으로 속이려 들지 말고 의학적인 도움을 청

협심증이란 라틴어로 흉통이란 뜻이다. 협심증은 심근에 충분한 피가 공급되지 못할때 일어난다.

간혹 운동, 스트레스, 흥분 등으로 협심증이 빈발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없애면 동통이 완화된다. 약물로도 완화시킬 수 있다. 손상받은 동맥을 대체하는 수술로서 치유하기도 한다.

• 협심증은 언제나 심근마비를 일으키는가?
그렇지는 않다.

어떤 경우에는 부차로가 생겨서 심근에 더 많은 피를 보냄으로써 동통이 감소되는 수도 있다. 가끔 협심증이 소실되기도 한다. 심근이 충분한 산소를 받게 되면 협심증은 일어나지 않는다.

• 치명적인 심장마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의사를 찾아가보

면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의 증가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것이다.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정상 이상이면 정상체중을 유지하면서 흡연을 삼가야 한다. 또한 규칙적이고 중등도의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를 단련한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다 들어주면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은 그만큼 감소한다.

3. 뇌졸중
•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뇌에 일어난 뇌마비 현상으로 이것은 뇌혈류가 차단될 때 생긴다.

• 뇌졸중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
뇌졸중을 일으키는 몇가지 경우

1. 뇌동맥 또는 목부위 동맥의 죽상경화증에 혈액의 흐름을 방지하는 경우.

2. 죽상경화증 부위에 혈괴(혈전증)가 형성되어 동맥을 막아 버리는 경우.

이같은 형의 뇌졸중은 뇌혈전증이다.

3. 순환할 내 혈괴(색전증) 뇌 또는 목, 부위의 작은 동맥내에 들어붙은 경우, 이같은 형의 뇌졸중은 뇌색전증이다.

4. 혈관내 약한 부위가 터질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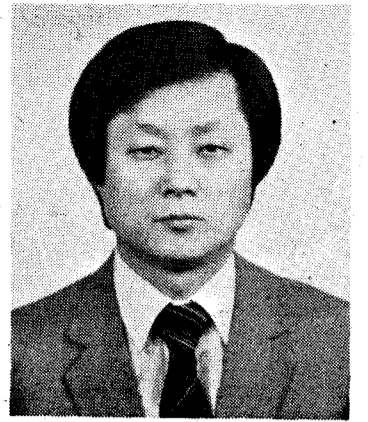
이것은 뇌출혈이다. (약한 혈관부위가 튀어나오면 뇌동맥류로 부르게 된다)

5. 회귀한 예에서는, 뇌종양이 혈관을 눌러, 혈액공급을 막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뇌졸중이 생기면 어떤 증세가 생기는가?
뇌졸중이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뇌는 신체 운동을 조절하므로 뇌졸중은 신체 어느 부위나 침범할 수 있다.

언어를 조절하는 부위의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언어장애를 받게 된다. 하지근육을 조절하는 부위의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이들 근육이 마비를 일으킨다. 기억력이 마비될 수도 있다. 뇌졸중이라도 아주 미약한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때는 아주 심한 증상이 출현하기도 한다. 급속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고비를 겪는 환자도 있다.

• 뇌졸중의 위험신호가 있는가?
가끔있다. 이들을 경도의 뇌졸중이라 부른다. 경도의 뇌졸중은 뇌세포에 충분한 양의 피가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것은 흔히 죽상동맥경화증의 진전 때문이다. 간혹, 작은 혈



李 禎 均

(한양대병원 내과)

괴가 작은 혈관을 부분적으로 막고 있을때 나타나기도 한다.

• 일과성 혹은 경도의 뇌졸중의 증세

1. 얼굴, 팔, 또는 다리에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2. 언어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말을 못하거나 말하기 어렵거나 남이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

3. 일시적으로 시력장애 또는 시력의 손실이 특히 한쪽 눈에 생긴다.

4. 한물건이 돌로 보인다.

5. 설명 못할 두통 또는 아직 경험 못했을 정도의 심한 두통이 난다.

6. 일시적으로 어지럽거나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한다.

7. 최근에 인간성의 변화 또는 지적능력 감퇴 및 변화가 나타난다.

만일 이같은 증상중 하나 또는 여러가지가 나타날때는 즉시 주치의에게 이야기 해야한다.


• 뇌졸중은 방지할 수 있는가?
가끔 있다.

경동맥(목동맥)에 혈괴가 발견되면 외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한 뇌졸중은 막을 수 있다.

한편 약물을 쓰면 혈전증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약들을 항응고제라 부른다.

•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뇌졸중이 뇌종양 또는 뇌출혈로 생겼다면 수술이 도움이 된다. 다른 경우 심신장애 재활교육이 필요한데 운동이 그 첫걸음이다.

<上>



「건강의 벗」
삼일제약

당뇨병!

왜! 후루다렌을 복용하는가?

당뇨병성망막증

진보된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못하는 난치병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미소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등에 의하여 이들 미소혈관에 병변이 발생되면 다시 정상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망막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취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는 혈당관리, 고혈압 환자는 혈압관리가 매우 중요한 동시에 각종의 혈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 보호제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나 혈압관리가 잘되고 있는 환자도 병력에 따라 망막증의 발병률이 증가되므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증의 예방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망막증에 대한 후루다렌의 약효입증!

후루다렌®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 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렌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 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 80% 이상이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렌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증 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후루다렌®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 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렌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 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 80% 이상이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렌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증 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